

구수한 입담 매력적인 소설가의 문인기행

「글발을 일구는 사람들」

‘소설가 이문구’ 하면 우선 그의 소설 문체가 떠오른다. 충청도 지방의 구수한 사투리로, 신경 써 읽지 않는다면 무슨 애긴지 몰라, 읽고 또 읽곤 해야 하는 그 독특한 문체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 문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문구의 문인 기행」 「글발을 일구는 사람들」 (열린세상)을 읽고는 그가 그 문체 못지않게 한 인물을 작품의 제재로 즐겨 사용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하긴 어느 소설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 작품이 있을까만, 그의 소설에선 그의 주위를 둘러 싸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유독 많이 등장하고 있다. 즉, 「우리 동네」 연작이 그렇고, 「관촌수필」 연작, 그리고 최근의 「유자소전」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의 작품의 소재를 가까운 이웃 사람들에게서 구한다는 것이다.

이 ‘문인 기행」도 그가 주위에서 보아 왔던 스물 한 명의 문인들의 삶이 담겨 있다. 그것을 소개하는 관점에 따라 이 글들은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지은이가 「한국문학」지에 근무했을 때, 기자로서 문인들을 소개하는 글들이고, 또 하나는 그런 객관적인 글과는 달리 그 문인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해 작품 해설, 혹은 발문으로 씌어졌던 글이다.

아무래도 후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써 다룬 글이라 작가의 독특한 문체가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 글에 실린 문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작가의 소설에서 느끼는 감동까지도 맞출 수 있다. 이 글모음을 통해 독자는 감히 근접하기 어려운 시인 고은의 인간적인 면과 지금은 문단의 중건으로 자리잡은 소설가 김주영의 등단 초기의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순진한 모습을, 그리고 70년대 문단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이 글모음의 백미는 시인 박용래를 소개한 ‘내가 왜 울어야 하나」가 아닐까 싶다. 박용래 시인의 시집 「먼 바다」에 해설처럼 붙여졌던 시인의 일생을 다룬 이 글은 뚜렷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한편의 뛰어난 소설이라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고백컨대 내가 이문구의 소설 중 가장 감명을 받았던 작품은 「관촌수필」 연작 중에서 「공산토월」과 「유자소전」이었다. 두 소설 모두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조사(弔詞)처럼 씌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박용래 시인에 대한 이 글 역시 시인이 죽은 뒤 지은이가 그를 추모하여 쓴 글이다. 물론

그 눈물 많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았던 한 시인의 삶 자체가 주는 감동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삶을 특유의 사실로 풀어낸 작가의 문체 또한 그 글을 더 감동적이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김현, 김윤식 공저의 「한국문학사」에 이런 구절이 있다.

“기존의 문학사가 작가를 작품 외적인 조건에 지나치게 묶어버림으로서, 소문과 풍문에 대한 독자들의 기호만을 조장시켜온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다. 물론 이 「글발을 일구는 사람들」 역시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들이 독자들에게 작가에 대한 그런 환상을 품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한갓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칠까 한다.

강영훈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90-42

신경숙 지음 「모여있는 불빛」

’93 이상문학상 추천우수작인 신경숙의 「모여있는 불빛」은 20세기 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도시인들에게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작품이다. 작품 초반에 묘사되는 공간적 배경은 콘크리트 빌딩속에서 호홉하고 있는 독자를 소 사료 냄새가 풍기는 시골의 따뜻한 아랫목으로 이끈다. 지리한 상황설명이나, 자극적인 사건을 동원하지 않고도 책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담담하면서도 간간히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문장들이다. 자칫 비유법의 문장은 작가의 화려한 문장 꾸미기나 난해한 수식어구로 인해 독자로 하여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오류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작가의 재치있고 유려한 문장은 해학적이면서도 그 비유가 어찌면 그렇게 글을 읽는 독자에게 그 느낌을 확연하게 전달하는지! 따라서 신경숙의 「모여있는 불빛」은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작가가 무엇을 뜻하려 하는지 알기 위해 부담스러운 긴장을 하며 글을 읽어나갈 필요가 없다.

독자로 하여금 무엇인가 가슴속에 고향을 생각나게 하고, 어머니의 품속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은연중에 이기적인 사회풍조를 꼬집고 있는 작가의 숨씨는 직접적인 비유를 작품 전반에 사용해 온 것과는 달리 거부감을 불

러일으키지 않고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그러한 아름다운 문장력으로 인해 벽찬 감동은 아니지만 잔잔한 향수와 자신의 생활주변을 되돌아 보게 하는 신경숙의 「모여있는 불빛」은, 조선여인의 쪽집 머리와 같이 깔끔하고 단아한 매력이 흐르는 작품이다.

권혜영

서울시 서초구 1656-4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신의 본질을 찾는 작업은 외롭고 험난하다.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군중속의 고독을 맞보아야 하는 이 시대에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당혹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이 작업자체가 결코 헛된 일일 수 없다.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분명 뜻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인화의 소설을 읽는 것은 매우 즐겁다. 그 즐거움은 아마도 이인화 스스로 말한 “가장 혐오하고 가장 사랑하는 세대”의 이야기가 너무나 친숙한 현실로 다가서기 때문이다. 80년대 말의 갈등과 독특한 경험이 서로 어우러져 한 폭의 자화상이 그려진다. 그 시절 열열히 내뿜었던 이데올로기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파편들, 모든 것들이 허물을 벗듯 날 날이 묘사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가치있는 것이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한톨의 소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치’란 낱말조차 매우 낯설게 들린다. ‘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만 가치있는 인간일까? 소설을 쓰는 썬티 부르조아 주인공의 행동과 거침없이 내뿜는 이데올로기의 논쟁의 회오리속에서 아무런 목표없이 서 있는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그런 나의 얼굴이 씻겨가듯 곧 사라져 버린다.

이인화의 「나를 찾는 작업」은 그의 매우 독특한 소설기법을 통해 한결 그 목소리가 드러난다. 이러한 글쓰기에 친숙하지 못한 우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렵다. 이인화는 나를 찾기위해 의도적으로 원근법적 사유방식을 파괴하고 큐비즘기법을 원용한다. 원근법적 사유방식에 따르면 하나의 시점 또는 관점을 고정시킨 뒤 그 시점상에서 외부적 대상을 바라본다. 따라서 외부적 대상은 항상 고정되고

질서정연한 총체로 인식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일성은 하나의 시점을 고정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부산물이다. 이에 반해 큐비즘기법은 어떤 고정된 시점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관찰하고자 하는 외부적 대상을 고정시킨다. 따라서 외부적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선 다양한 시점을 필요로 한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 본 외부적 대상은 외양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피카소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이러한 기법에선 질서정연한 통일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인화가 보여준 ‘나’도 이와 비슷하게 어떤 통일성을 찾을 수 없다.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타자에게도 ‘나’로 동일화시킴으로서 의도적으로 독자를 혼란시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의미가 어떤 통일적 지향을 설명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화의 글읽기에 아쉬움이 있다면, 그의 소설전반에서 계급적 갈등을 표출하고 있지만, 그 계급적 갈등이 해소되는 용해점을 찾기 보다는 철저히 나열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점이 바로 리얼리스트가 분노하는 대목이다.

나영옥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2동 580번지 2동7반

김훈 지음 「풍경과 상처」

일상의 삶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무기력하고 지칠 때,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포근히 감싸주고 때로는 치유도 해주는 ‘자연’을 생각해낸다. 그 자연에서 「풍경」과 「상처」를 보는 것, 이 또한 행복한 만남이라 여겨진다.

김훈의 「풍경과 상처」(문학동네)도 그러하다. 작가가 답사한 유적지와 자연의 풍경들 그리고 아름다운 문학의 편린들이 작가의 폭넓은 사유와 유려한 문장에 얹혀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급기야 자연을 통한 깊은 사색의 길로 안내하기도 한다.

텅빈 도심, 간간히 들려오는 자동차들의 소음도 사라지고 침묵만이 내일을 기약하며 잠들 때, 한 잔의 커피와 함께 「풍경과 상처」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일몰의 빛은 바다에 닿아 죽는다. 바다를 가득 채우는 빛은 죽음보다 가볍다. 빛은 죽어서 부재(不在)로부터 부재로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는 여정속에서만 빛들의 삶은 빛난

우리 열한 식구가 편집의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러스트 김천정

- 집필부** 자서전을 쓰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시다고요?
그 동안 자서전·회고록·개인 출판물을 집필해 온 집필부에서 논리 정연한 문장이 되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집필과 윤문도 하고 있습니다.
- 편집부** 단 한 자의 오자도 없어야 한다고요?
사전·한서·문학 및 학술서적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완벽하게 교열·교정을 해 드릴 것입니다.
- 전산부** 레이아웃 때문에 걱정이시라고요?
백과사전·잡지·사보·단행본 등 각 특성에 맞춰 가장 어울리는 레이아웃으로 알찬 면 구성을 해 드릴 것입니다. 매킨토시와 PC의 필름 및 인화지 출력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三現編輯室

대표 김문권

137-030 서울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화: 549-6883~5 팩스·모델: 515-1453

다. 그러나 그것들의 소멸을 죽음이라고 말해 서는 안되리라. 빛들은 피와 살의 자식이 아닌 때문이다. 일몰의 동해에서 수면에 깔린 빛들은 소멸해 가는 시간의 가루들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스한가. 뛰어난 수채화 한폭을 보는 느낌이다. 이미 작가는 내가 읽은 책과 세상에서도 수려한 문장과 치밀한 에세이를 선보였었다. 이 책 역시 더욱 성숙되고 노련한 장인의 솜씨가 뽐낼 배어있음을 느낀다.

값싼 언어가 사회를 더욱 황폐화시키고, 이에 질세라 저급한 대중문화는 온갖 언어유희로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것만을 추구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인양 미화되어 독자를 혼란시킬 때, 「풍경과 상처」는 보란듯이 다가와 언어의 진실과 뛰어난 성찰로 소중함을 일깨우며 속물적인 그 모든 것에 우뚝선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서 빛나는 보석 대접을 받기 위해 작가의 외로운 여행이 담보물이 되었다.

“밝음의 시간들은 어둠속의 시간속으로 스며들어서 다가온다. 그것들은 지속되면서 변화한다. 남해 금산의 새벽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들의 이 임무교대는 물러갈 시간과 다가올 남쪽 바다의 먼 저쪽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밝은 시간의 알맹이들은 흘러가는 어두운 시간의 구름 속을 헤집고 들어가 자신을 소멸시킨다.”

외로움의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외로움의 실체를 알 수 있으며, 인생의 깊은 의미를 통찰한 사람만이 행복에 대하여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풍경과 상처」를 만남으로 해서 나쁜 의식에서 탈출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의 사유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고갈된 창조력을 재충전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감사하고 싶다.

백정욱

경북 대구시 서구 변동 15-15 16동 1번

하퍼 리 지음 「앵무새 죽이기」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가 있듯이 책을 고르는 데도 많은 차이가 있다. 작가의 이름을 보고 고르는 사람, 제목을 보고 고르는 사람, 먼저 읽은 사람이 권해서 보는 사람, 신문이나 라디오의 광고를 접하고 나서 선택하는 사람 등... 내가 「앵무새 죽이기」(한겨레)를 읽게

된 동기는 라디오 광고를 듣고 나서이다. 겉표지에 이 작품의 주인공인 듯한 한 소녀가 슬픔과 놀라움의 눈빛을 발산하는 그림이 그려진 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많은 암시와 긴장감을 주면서도 재치와 유머 그리고 어린아이의 천진성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소설이었다. 내용상으로는 잔잔한 웃음을 머금게도 하고, 인종간의 뿌리깊은 갈등을 보게 하는, 그 당시 미국 사회를 대변해주는 감동적인 작품이다.

등장인물로는 뿌리깊은 인종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강간범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은 흑인 톰 로빈슨과 그를 변호하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한 집안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점차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희생양이 되어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이웃 사람 ‘부 래들리’가 등장한다. 즉 제목의 ‘앵무새’는 톰 로빈슨과 부 래들리라는 소외된 이웃의 기쁨과 양심을 상징하고 있는 듯하다.

이 작품은 ‘진 루이스 핀치’라는 여성이 일곱살부터 열살까지의 어린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그 소녀가 이러한 소외된 이웃들을 관찰하고 보듬어가는 아름다운 소설이다. 문학적 감동과 소설적 흥미를 겸비한 작품이기도 하다. 전체적인 인상은 단순하지만, 유년의 삶이 가져다 준 소외된 이웃 사람과 그들을 보면서 놀라움과 두려움의 세계가 교차하는 한 소녀 진 루이스 핀치의 눈을 그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소녀의 눈에 비친 흑백간의 갈등문제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애석하기 그지없다.

작가 하퍼 리(Harper Lee)는 1960년에 발표한 이 작품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1961년에는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는 이 소설의 무대가 되고 있는 앨라배마주의 도서 관협회상과 국제 기독교도 및 유대인연맹 조합상, 62년에는 그해 최고 베스트셀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앵무새 죽이기」는 원제 「To kill a mocking bird」를 직역한 것으로, ‘mocking bird」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미국에서만 사는 앵무새과에 속하는 새로서 인간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노래만을 불러주는 새”라고 나와 있다.

서연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4-4